

발행처: 한국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 고영화

전화: +86-136-8309-8080  
메일: [yhko@kicchina.org](mailto:yhko@kicchina.org)

'주간 중국 창업'의 저작권은 'KIC중국'에 있습니다. 무단으로 수정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 주간 중국 창업 NEWS

- ▶ 중국이 AI교육을 적극 확산, 고등학교용 '인공지능기초' 교과서가 상하이에서 첫 발표 (양광망, 2018. 4. 28)
- ▶ 택배 관련 새 규정 5월부터 실시, 최고 10만 위안 벌금 처벌 가능 (북경청년보, 2018. 5. 2)
- ▶ 샤오미, 홍콩 증시에 IPO 사업설명서 제출 (중국경영보, 2018. 5. 3)
- ▶ 캠브리콘, 최고의 글로벌 클라우드 스마트칩 공개 (시나뉴스, 2018. 5. 3)
- ▶ 텐센트는 꿈이 없다! (환판슈, 2018. 5. 5)
- ▶ IT오렌지 주보: 4/30~5/6까지 있었던 59개 국내 투자/합병 건 (IT오렌지, 2018. 5. 7)

## 주간 중국 전문가 ISSUE

- ▶ AI 특집 (2018. 4. 28 ~ 2018. 5. 8) – KIC중국 제공
- ▶ 전기차 특집 (2018. 4. 21 ~ 2018. 4. 27) – SV Investment 제공
-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특집 (2018. 5. 4) – PLAYCOIN 제공
-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 (27) (2018. 5. 7) – 윤형건 교수 제공

## KIC중국 NEWS

- ▶ 중국 혁신창업 생태계 현지조사단 선전시 방문, 고영화 센터장 특강 진행 (2018. 5. 2)
- ▶ KIC중국 및 코트라, 우한에서 제5회 기업가정신과정 창업교육 및 취업설명회 개최 (2018. 5. 5)
- ▶ 제2회 재중국 한국유학생 제4차 산업혁명 창업대회 계획 v4.1
- ▶ KIC 중국 인큐베이션 및 엑셀러레이션 모집 공고

## 주간 중국 창업 NEWS

## 1. 중국이 AI교육을 적극 확산, 고등학교용 '인공지능기초' 교과서가 상하이 시에서 첫 발표

(출처: [양광망\(央广网\)](http://www.cw.com.cn), 2018.4.28)

4월 28일,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 화동(華東)사범대학출판사, 상탕(商湯)테크놀리지, 화동사범대학 무크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인공지능 교육 세미나 및 '인공지능기초(고등학교판) 교과서 발표회'가 상하이시에서 열렸다.

화동사범대학무크센터, 상탕테크놀리지, 상하이 유명 고등학교의 우수 교사가 공동으로 만든 글로벌 최초 인공지능 교과서 '인공지능기초(고등학교판)'가 발표되었다. 화동사범대학 제2부속중학교, 상하이교통대학 부속중학교, 칭화대학교 부속중학교, 상하이시 서중학교 등 전국 40개소 학교가 1차로 '인공지능교육실험기지학교'로 선정되었다. 인공지능이라는 최전방 첨단기술이 실험실을 벗어나 고등학교 학생들도 접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이 되었다.

**AI기초교육 추진, 국가인공지능 고지 구축**

향후 10년 간 인공지능의 주요한 경쟁은 인재 경쟁이라는 점은 글로벌 산업이 공통된 시각이다. 2017년 연말, '상하이시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추진에 대한 실시 의견'을 발표한 상하이시는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인재 고지 구축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확립했다. 2017년 상탕 테크놀리지는 상하이시 인민정부와 전략 협의서를 체결하고, INESA(上海儀電), 린강(臨港)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상하이시를 스마트 도시로 건설하는 속도를 올리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AI 교과서는 '손과 뇌의 결합'을 강조**

'인공지능기초(고등학교판)' 교과서는 글로벌 선도 인공지능플랫폼 기업인 상탕 테크놀리지와 화동사범대학 무크센터가 화동사범대학 제2부속중학교, 상하이교통대학부속중학교, 치바오(七寶)중학교, 거즈(格致)중학교, 서(西)중학교, 진위안(晉元)중학교 등 6개소 상하이시 유명 고등학교의 우수교사들을 초빙하여 공동 편

성한 교재로 産學研 분야에서의 탄탄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상탕 테크놀리지의 탄탄한 학술연구 및 창작 노하우가 있었기에 교재의 전문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었다.

기타 전통적인 교재와는 달리, '인공지능기초(고등학교판)' 교재는 '손과 뇌의 결합'을 주요한 학습 방식으로 취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제공한 뒤, 학생들이 직접 실험하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향상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화동사범대학교 출판사 왕옌(王焰)회장은 고등학교용 인공지능기초교재는 국무원의 '전민기능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중초등학교단계에 인공지능 관련 과정 설치'지시와 일치하고, 교육과정 개혁과 혁신의 수요에 부응했으며, 과학정신의 고양과 학생들의 성장에 눈을 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았다.

### AI랩을 최초로 개설, 몰입 프로그램 체험 선도

발표회 현장에서 상탕 테크놀리지의 공동 창시자인 홍콩중문대학 린다화(林達華)교수 및 연구진이 AI랩 플랫폼을 시연했다. 해당 실험 플랫폼은 GPU 및 상탕이 독립 연구개발한 인공지능 딥 러닝 알고리즘 Parrots플랫폼이 설치되어 있고, 딥러닝 모델 트레이닝과 알고리즘의 커스텀마이징 확장을 지원한다. 교재에 맞춰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실험, 작업, 대회, 혁신 프로젝트 등과 연결시키고, 실험과정과 결과를 가시화하며, 교재와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학생의 이론과 실습을 연결시키는 능력을 양성한다.

학생들의 학습과 실습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상탕 테크놀리지는 상하이시 서중학교, 화동사범대학에 안면인식시스템, 타겟분석 시스템, 학생행위 모니터링 시스템, 수업실험플랫폼, 로봇, 무인 자동차 등을 일체화한 AI랩을 설립했다. 학생들은 교재와 결합하여 각종 실험실, 작업, 경기 및 독립적 혁신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다.

## 2. 택배 관련 새 규정 5월부터 실시, 최고 10만원안 벌금 처벌 가능

(출처: [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 2018.5.2)



중국 최초의 택배업 전문 행정법규인 '택배잠정조례'가 2018년 5월 1일부터 발효된다. '조례'는 "택배업체는 택배물을 약속한 주소, 수령인 혹은 지정 수령인에게 전달해야 하고, 수령인 및 대리 수령인이 직접 검수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업과 개인을 막론하고 타인의 택배물을 사사로이 개봉, 은닉, 파기, 매매할 수 없다. 택배업체 종사자들은 배송 과정에서 취득한 사용자 정보를 판매, 누설, 불법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 최고 10만 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새 규정은 매우 엄격하고 택배 이용자들의 우려사항을 거의 모두 고려하고 있다. 예로, 배달원이 택배물을 문앞에 던져두고 가거나 수신자 혹은 지정 수신자가 면전에서 검수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 모두 규정을 지었다. 새 규정은 행정법규에 속한다. 엄하게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부실하다면 의미가 없다.

중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강국이고, 온라인 쇼핑은 이미 보편화되었다. 얼굴을 맞대고 직접 구매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전자상거래는 택배회사를 매개체로 활용한다. 뛰어난 실력을 갖춘 물류기업도 택배원에게 의존해야 한다. 택배회사에서의 택배원은 평범한 위치인 듯하지만, 고객 입장에서의 택배원은 택배회사의 '명함'이나 다름없고, 서비스 품질의 우열은 고객의 택배회사에 대한 평가 및 이후의 선택과 직결된다.

현실에서는 택배원과 수령인(지정 수령인)이 택배물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이 규범에 어긋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우선 택배원이 직접 문 앞까지 배송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 택배원은 택배를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경비실에 놓고 가거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한다. 이는 택배원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주원인이지만, 주택단지의 관리방식에서 비롯된 객관적 요소도 존재한다. 때문에 규정이 출범되었다고 해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택배원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지키는 것 외에, 주택단지의 관리소에서도 택배원에게 편의와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택배 규정으로 물류회사와 택배원을 관리할 수 있겠지만, 과연 주택단지 관리소까지 관리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존재한다.

택배원 앞에서 직접 검수하는 데에 대한 규정 역시 애로사항이 있다. 택배원의 입장에서는 배송만 하고 검수까지는 원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지체될 뿐더러 검수 후 문제가 발견되면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밖에도, 일부 고객이 귀중품을 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택배원 앞에서 바로 검수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 역시 번거로움을 원하지 않는 심리 때문이다.

발송자와 수령인의 보안 문제는 모두의 관심사항이지만, 일단 시스템에 입력되면 사실상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어쩔 수 없게 된다.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로는 은행, 통신회사, 메일, Wemedia 등 다양하기에 택배업만 단속해서는 개인정보의 누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이밖에도, 개인 정보 누설에 대한 처벌은 매우 무겁고 최고 10만 위안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고객 입장에서는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2017년, 중국 택배업의 총 업무량은 400.6억 건으로, 1인당 평균 30건에 달했다. 방대한 규모를 갖춘 택배 산업은 온전한 법규 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 택배산업은 체계적인 공급측 개혁이 필요하다. 시장 환경을 규범화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제규정을 완비해야 하고, 감독관리를 표준화해야 한다. 택배업은 독립적인 시장이 아닌 전체 시장체제의 유기적인 구성부분이며, 빅데이터 안의 소비패턴과 라이프 스타일의 연결고리이다. 택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단순히 엄격한 규정사항에 의존해서는 택배업에 존재하는 일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법치와 체계적인 시장체제 관리가 잘 접목되어야만 새로운 규정이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다.

### 3. 샤오미, 홍콩증시에 IPO사업설명서 제출

(출처: [중국경영보\(中国经营报\)](#), 2018.5.3)



5월 3일, 샤오미가 홍콩증시에 IPO사업설명서를 제출했다. 빠르면 6월이면 상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업설명서로 본 샤오미의 재무실적

사업설명서 초안에 따르면 2017년 샤오미의 연 매출액은 1146억 위안이고, 경영이익은 122.16억 위안에 달했다. 2016년 매출액은 684억 위안, 경영이익은 37.85억 위안에 달했다. 2015년 연 매출액은 668억위안, 경영이익은 13.73억 위안이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전환 우선주, 상환 우선주에 거액의 공정가액 적자가 발생하여 1,272억 위안의 순부채액 및 1,290억 위안의 누계손실을 안고 있다.

샤오미의 주요 수익 분야는 스마트폰, IOT과 생활소비재, 인터넷 서비스, 기타 등 4가지이다. 이중 가장 주요한 수입원은 스마트폰 사업이다. 2017년 스마트폰 사업 분야에서 거둔 수입은 805.64억 위안으로 전체 수입의 70.3%를 차지한다. IOT와 소비재 분야 수입은 234.48억 위안,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이다. 인터넷 서비스 분야 수입은 98.96억 위안,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이다.

레이쥘(雷軍) 등이 2010년에 설립한 샤오미는 올해 2월에 글로벌 시장에서 네 번째로 큰 스마트폰 메이커로 성장했고, 2017년 4분기 판매량은 애플, 삼성, 화웨이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IDC데이터). 샤오미는 현재 1.9억에 달하는 모바일 유저를 보유하고 있고, 500여가지 스마트 하드웨어 제품을 창조했으며, 세계 최대의 소비자 IOT플랫폼을 구축했고, 1억 대 이상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연결시켰다고 자부하고 있다.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샤오미는 현재까지 9라운드의 용자를 받았다. A라운드는 2010년 9월에 이루어졌는데, 용자액은 1,025억불에 달했으며, 가장 마지막 즉 2014년 12월에 이루어진 용자를 포함하여 누계 15억불에 달하는 투자를 받았다. 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12월의 용자 후 샤오미의 기업가치는 450달러로 평가되었다.

이번 샤오미가 홍콩 증시에 상장하면서 샤오미의 기업가치가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개자 측 소식에 따르면 현재 중개자, 투자은행, 잠재적 투자자의 경우 최저 700억달러로 평가하고 있고, IPO후 단기적으로 100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 레이쥘이 중국 최고의 갑부로?

상장전, 샤오미의 창시자 레이쥘은 31.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EPOP옵션권을 감안하면 28%에 달한다. 공동창시자 린빈(林斌)은 13.33%, 리완창(黎萬强)은 3.2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업계는 샤오미의 기업가치를 800억-1000억 달러 사이로 평가하고 있다. 1000억달러를 기준으로 계산시, 레이쥘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가치는 314억 달러에 달해 마화텅(馬化騰), 마윈(馬云), 쉬자인(許家印)의 다음 순위가 되며, 중국 최고의 갑부는 아니지만 후베이(湖北)성의 최고 갑부로 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더불어 100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재정적 독립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비록 레이쥔의 지분 보유량이 50% 미만이지만 샤오미에 대한 통제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4월 24일 홍콩증시가 상장규정을 수정한 뒤 투표권이 다른 주식 회사의 신청을 허가했고 4월 30일부터 발효되었다. 샤오미는 홍콩 증시 최초로 '투표권이 다른 주식' 신청기업이 되었다.

샤오미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레이쥔과 린빈이 보유하고 있는 A주는 10배에 달하는 투표권을 취득할 수 있다. 샤오미에서 투표권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수익자는 레이쥔과 린빈뿐이고, 기타 공동창시자는 초다수 의결권을 보유하지 못했다. 2018년 4월 2일 사업설명서를 제출하기 전에, 샤오미는 레이쥔의 회사에 대한 기여를 표창하고자 그에게 63959619주의 B보통주를 배급했다. 레이쥔은 차등의결권 구조를 통해 현재 50%이상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샤오미 그룹의 지배주주로 되었다.

### 상장은 시작에 지나지 않아

이번 IPO에서 얼마만한 자금을 모금할지에 대해서 샤오미의 사업설명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월 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의 정보를 인용하여 샤오미가 최소 100억달러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모금된 자금에서 30%는 연구개발 및 핵심제품 개발에, 30%는 투자 및 IOT와 생활소비재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등 생태사슬 보강에, 30%는 글로벌 확장, 10%는 자금 운영 및 일반적인 용도에 투입될 것이라고 사업 설명서는 밝혔다.

상장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샤오미는 이제 바로 여러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첫째, 샤오미에게 부족한 것은 기업가치가 아니라 혁신적인 제품이다.

천억달러에 달하는 영업액을 실현하기까지 화위이는 21년의 시간을 들였고, 텐센트와 알리는 17년의 시간을 들였으며, 페이스북은 12년의 시간을 들였다. 7년이란 시간을 들여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가치를 실현한 샤오미가 우리에게 준 인상은 '헝거 마케팅'뿐이다.

둘째, 샤오미의 고성장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2018년 1분기 핸드폰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1분기 핸드폰 전체 출하량은 21%하락하여 9100만대에 달했는데 이는 사상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한 것이다. 샤오미의 출하량은 비록 1200만대에 달해 37% 성장했으나 1년전의 슬럼프에서 헤어나와 성장폭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이 원인이 되며, 이런 성장폭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셋째, 자본의 단기적 목표와 샤오미의 장기적 목표의 일치여부는?

레이쥔은 최근5%미만의 순이익률 목표를 제기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샤오미는 사물 인터넷 및 각종 생태사슬 포석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샤오미는 결코 아마존이 아니고, 샤오미의 투자자 역시 샤오미가 아마존처럼 오랜 시간동안 낮은 영리수준의 사업패턴을 유지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상장한 샤오미가 자본의 이익중심의 사고방식에 어떻게 대항하고, 자사의 장기적 목표와 일치한 보폭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샤오미의 숙제이다.

상장이 득(得)이냐 실(失)이냐? 아직은 미지수이다.

## 4. 캠프리콘, 글로벌 최고의 클라우드 스마트 칩 공개

(출처: [시나뉴스\(新浪新闻\)](#), 2018.5.3)



글로벌 AI 스마트 칩 연구개발 분야의 선두주자인 캠프리콘(寒武纪科技)이 5월 3일 상하이에서 글로벌 탑 레벨의 클라우드 스마트 칩 Cambricon MLU100과 보드 제품을 공개했다. 중국 유명기업 레노보, 슈공과 아이플라이테크 등 기업도 캠프리콘 기반의 응용제품을 동시에 발표했다. 해당 제품은 시각, 음성, 자연언어 처리, 데이터 마이닝 등 분야 복잡한 응용환경하의 클라우드 스마트 처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해당 칩을 탑재 후 스마트 폰은 보다 양호한 응용환경 인지능력과 안면인식능력을 갖추게 되고, 다양한 광선조건에서 셀프 촬영, 안면인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동시에 시중의 일부 스마트폰이 안고 있던 안면인식 능력이 미흡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캠프리콘은 클라우드 스마트 칩의 연구개발과 영업에 주력하는 회사로, 현재 상하이에서 100여명에 달하는 연구개발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상하이 브레인-지능공정 명의로 원사기지를 설립하고 전향적 학술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MLU100 클라우드 스마트 칩은 캠프리콘이 2년의 시간을 투입한 연구성과이다. 캠프리콘의 창시자 및 수석과학자인 천톈스(陳天石), 천윈지(陳雲霏) 형제는 중국과학기술대학 영재반 출신 엘리트이다. 오늘 두 형제는 학생시절의 박사지도교수, 중국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분야 선구자 1인인 중국과학기술대학 천귀량(陳國良) 원사와 공동으로 글로벌 선도적인 스마트칩을 발표했다.

캠프리콘이 동시에 발표한 1M 단말기 지능 프로세서 IP제품은 제3세대 IP제품이다. 2016년 캠프리콘이 공개했던 제1세대 지능 프로세서 IP제품은 글로벌 최초로 상용화된 단말 지능 프로세서 IP제품으로 화웨이(華爲) Mate10, P20, Honer10 휴대폰 등 수천만대에 달하는 스마트 단말기에 이미 적용되어 있다. 제3세대 IP제품은 5Tops/watt 연산, 응용환경별 다양한 지능 프로세싱이 가능하고, 멀티코어 접속(Multicore interconnection)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MLU100 칩이라는 이 이정비식 발표와 더불어, 캠프리콘은 중국 최초, 글로벌 소수의 단말기와 클라우드 스마트 프로세서 제품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자리잡게 되었다.

## 5. 텐센트는 꿈이 없다!

(출처: [완판수\(乱翻书\)](#), 2018.5.5)



텐센트가 제품력과 창업정신을 잃고 투자회사로 전락하고 있다. 설립한지 20년에 가까워가고 있는 텐센트는 점차 공리적이고 근시안적으로 변하고 있고, 기업의 우세조차 제품과 서비스가 아닌 투자 스킬로 변하고 있다.

3Q대전 8년 후, 텐센트는 트래픽과 자본을 기업성장의 동력으로 하여 투자기업의 길에 들어섰다. 더불어 회사는 제품과 혁신능력을 잃고, 검색/웨이보/전자상거래/인포메이션 스트리밍/짧은 동영상/클라우드 등 주요 전장에서는 속속 패하고 있다.

텐센트는 스스로는 가장 과학적인 경영방식으로 과학기술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텐센트는 과학기술기업의 핵심경쟁력은 혁신에 있다는 점을 잊어가고 있다. 소셜 링크와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 주력한다 하지만 터우타오(头条)와 더우인(抖音)의 도전에 어쩔바를 모르고 있다.

그 원인은 아래 세 가지로 분석된다.

### 가. 트래픽과 자본

#### Martin + James

2011년 연초, 마화팅과 텐센트16명의 고급관리자는 텐센트의 핵심 경쟁력을 자본과 트래픽 두가지로 정리했다

현재 마화팅은 GR과 PR을 총괄하고 회사의 일상운영은 류즈핑(Martin)과 James가 맡고 있다. 류즈핑은 회사의 일상관리를 맡고, James는 텐센트의 전략기획, 전략실시 및 투자자관계 등을 맡고 있다.

Martin+James, 골드만 삭스 출신의 두 파트너는 투자 전략을 적극 실시했고, 서우거우텐핑(搜狗点评), 징둥(京東), 58등 투자건들이 모두 두 사람의 작품이다.

7년이 지나 텐센트의 시가는 10배 부풀려졌다. 2018년 5천억달러를 초과하고 페이스북을 추월했다. 반면 2011년 3월, 제1위에 있던 바이두는 그 시가가 아직까지 천억달러를 초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투자은행의 사고방식

Martin + James가 주도하는 신형 개방투자 패턴은 지속적으로 뺄셈법을 실시하는 것이다. '중복된 것, 영리성이 낮은 것, 전망이 밝지 못하는 것, 잘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 잘라내어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 버티컬 거대기업에 맡겨 운영토록 했다.

2011년 이후, 자본+트래픽의 전략에 힘입어 텐센트의 시가는 10배로 부풀었다. 텐센트는 데이터와 경쟁에 초점을 맞추었고 보다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미래 시장에 대한 주목과 투입은 오히려 소홀시 했다.

심지어 회사에서 추진중이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인내심을 잃고 주식투자하듯이 이익만 추구하고 ROI 사고방식으로 신제품의 투입과 산출의 비를 평가하기 까지 했다. 투입이 산출의 상한치에 도달하면 사정없이 잘라버렸다.

공리적인 사고방식은 텐센트를 프로젝트에 대한 애정이 전무한 기업, 프로젝트와 사용자는 금전의 희생양으로 전락시켰다.

### 트래픽≠사용자

과거, 지인 소셜의 위대한 힘은 텐센트를 트래픽 식물사슬의 최상단에 등극시켰다. 텐센트의 트래픽은 QQ와 위챗, 지인 중심의 밀폐식 관계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낯선 사람들간의 오픈된 관계영역 이룰테면 웨이보, 동회회와 짧은 동영상 분야에서 텐센트는 몰패했다.

텐센트는 트래픽을 맹신한다. 하지만 트래픽은 결코 사용자가 아니고 데이터에 지나지 않는다. 사용자와 트래픽을 직결시키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모독이다. 통계 프로그램으로 집계된 신규 증가 유저는 결코 진실한 유저수라고 볼 수 없고 이런 인식은 실제 운영에서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 알리를 견제

경쟁상대를 견제키 위해, 텐센트와 알리는 2013년부터 전자상거래, 결제, 택시, 배달음식, 공유자전거, 클라우드, 뉴 리테일 등 분야에서 근접전을 벌였다.

텐센트가 제품혁신을 확대하게 된 원인에는 선택적인 개방투자전략외에도 텐센트의 '냉전'사고와도 관계가 있다고 본다. 텐센트는 중국시장의 AT양자대결의 구도는 이미 고착되었고 실력있는 기업들은 이미 각각 양사의 휘하의 고용군으로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

알리를 의식한 텐센트는 전략적 투자과정에서 재무이익의 가치를 전략적 가치의 윗자리에 올려 놓고 보았다. 현재 텐센트는 '재무 투자자에 가장 근접하는 전략 투자자'로 기업 포지셔닝을 정했다. 예로, 텐센트의 투자 바운더리는 알리에 비해 훨씬 넓고, 순수 재무 투자 프로젝트 또한 매우 많은 반면 알리는 아직도 투자와 업무를 일정정도 접목시키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

### 나. 노인과 노화

#### 조직과 데이터의 벽

텐센트의 정보 관련 사업은 휘하에 OMG의 뉴스, 동영상, 속보, 스페이스, 브라우저, 프로그램 다운로드 등 9개나 되는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은 터우타오(頭條)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텐센트 내부 데이터가 상호 연결되지 않고, 내부 부서간 충돌과 분리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일관성있고 강유력한 전략과 집행이 미흡한 데 있다. 이를테면 브라우저 사업부가 터우타오를 벤치마킹하여 콘텐츠 생태와 정보 트래픽 추천 패턴을 활성화시키려면 다른 사업부 이를테면 뉴스, 동영상 속보 등에게 데이터 오픈을 청구해야 하고, 오픈을 거부할 경우 OMG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속보 사업부 투입확대시 위챗 공식계정을 훌륭히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 그 일례이다.

다른 한 답안은 업무상 하드코어적인 기술이 적은 편이다. 예로 시기술의 경우, 텐센트 AI Lab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절예(絶藝)'는 선후로 '무자(舞者)'와 'Phoenix Go'에게 패했다. '무자'는 터우타오에서 이미 관리직으로 전환한 기술부사장 양전위안(楊震原)이 개인적으로 여유시간에 완성한 것이고, 'Phoenix Go'는 워챗 번역팀 엔지니어들이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완성한 것이다.

### 융통성이냐, 자본이냐

워챗과 왕자영요(王者榮耀, 게임)국제화의 실패는 텐센트가 시간과 기회를 낭비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례이다.

2012년 6월 1일, 워챗은 글로벌 다수 지역에서 SNS류 다운로드 제1위에 올랐다. 당시 마화팅은 워챗만이 텐센트를 진정으로 국제화된 회사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판단하고 20억의 예산을 준 바 있다

하지만 워챗은 글로벌시장에서WhatsApp에게 패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Line에게 머리를 숙였다. 2012년, 2013년은 상기 세 기업은 국제시장에 진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고, 나머지 두 기업은 자본과 자원에서 텐센트와 비교도 안되는 상대들이었다.

실패원인을 살펴보면, 워챗의 경우 조기개발과정에서 국제화를 고려하지 않고 고착화시킨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국제화를 결정 후 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 많았던 것이 이유의 하나이다. 다음, 워챗의 국제화는 워챗사업부가 아닌 아닌 CDG가 추진한다. 제품기획, 기술, 아키텍처 구축, 디자인안... 부서간 의사소통이 업무추진에는 너무 큰 걸림돌로 작용했고, 효율에 직영향을 미쳤다.

'왕자영요'의 해외 런칭 역시 유사한 오류를 범했다. 지역별로 별도의 버전을 재개발해야 했고, 시작단계에서 관련된 고민과 준비가 미흡했기에 지역별 제품의 업그레이드 역시 동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미지나 텍스트에서도 버전별로 재작업이 필요했다.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전략적 시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이 국제화가 실패한 또 다른 한 이유이다. 제품 런칭, 커스트마이징, 앱스토어에 업로드 등이 아니라 현지 운영상 찾기에 급급했고, 일본과 동남아의 텐센트를 찾기에 급급했다. 우선 비즈니스 파트너 선정을 협상하후 다시 제품을 런칭시키고, 그에 따르는 수정을 실시하는 방식은 효율성이 매우 떨어져 전략적 적기를 놓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

급변하는 시장에서 적절한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대규모 회사는 자원을 우선으로 꼽을 수 있지만 융통성이 부족한 판단이라고 보여진다.

###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

텐센트에는 '이기면 왕이요, 패하면 역적이다.'라는 기업문화가 있다. 관리자층이 혁신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문화가 팀리더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았다.

일반 직원들의 경우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리더만 교체될 뿐 급여나 연말 상여금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팀 리더의 경우는 프로젝트의 실패에 대하여 최대한의 책임을 져야 하고 심지어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두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하나는 변두리 사업부서로 가서 시간을 떼우는 길, 다른 하나는 독립하는 길이다.

실패에 대한 무관용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혁신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전쟁은 줄었지만, 승리 또한 줄었다. 신인들은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텐센트는 아직까지 인재 사다리를 구축하지 못했다. 어려운 일에 부딪치면 습관적으로 텐센트에서 가장 오랜 경력직이 선봉장으로 나선다.

## 다. 사명과 가치관

### 인간은 경험의 노예

경험은 우리가 위험을 비껴가게 만들어 줄 수 있지만, 기회도 함께 잃어버리게 한다. 마화팅은 미니멀리스트, 직관론자이다. 2004년 마화팅은 인터넷 회사는 기술, 응용, 사용자와 서비스 세가지 원동력이 있고 텐센트는 세번째의 원동력을 양성하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년의 성장을 돌이켜 보면, 텐센트의 명운을 결정했던 몇차례 중요한 제품혁신, 쿠키쇼, 쿠키 스페이스, 위챗 내지 '왕자영요'는 모두 제품연동과 응용혁신으로 단기적 효과를 노린 액션이었고, 중국 네티즌의 비추얼 소비심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기반으로 한것이지, 검색이나 전자상거래 사업처럼 장기적인 이익 회수를 겨냥한 투자는 결코 아니었다. 투자생태의 구축과 응용층 연구개발에 수년을 전전해온 텐센트, 기술을 원동력으로 하는 기업으로는 성장하지 못했다.

소셜과 콘텐츠는 젊은 세대들을 겨냥한 제품이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쉽게 변한다. 단순한 경험으로만 유저들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아진다.

### 텐센트는 꿈이 없다.

텐센트는 가장 존경받는 인터넷기업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대단하다! 하지만, 내용은 없다. 아무도 이 비전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 모른다. 탄탄한 비전이 없는 의사결정은 기회주의로 변질되기 쉽다. 텐센트는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관성만 있고,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지향성은 없다.

### 조직의 변화가 최대의 도전

오늘날, 관리자의 핵심은 조직이 환경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조직이 불확정적인 능력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인터넷 회사의 조직구조는 아직까지 산업화시대의 과실(科室)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제조현장의 근로자들처럼 KPI 인사고과제도를 고집하고 있어 심각한 자원의 내적 소모와 저효율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오늘날, 조직의 변화는 텐센트, 바이두 등 대기업이 당면한 최대의 도전이다.

## IT오렌지 후보: 4/30~5/6까지 있었던 59개 국내 투자/합병 건

(출처: IT오렌지(IT桔子), 2018. 5. 7)

IT 오렌지의 지난 주 보고서에 따르면, 금주에는 (4.30 ~ 5.6)에는 12개 분야에서 총 59건의 국내 투자/합병이 발생했다. 그 중 하드웨어 영역이 가장 많았다.

주로 초기 투자가 많았으며, 시드 라운드는 3건, 엔젤은 5건, A단계는 21건, 전략 투자는 13건이다.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문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텐센트의 투자 횟수가 제일 많다. 하지만 투자 금액이 제일 높진 않다.

5월 2일, 징동이 중국물류자산(中国物流资产)의 주식을 사들였다. 규모는 9억 홍콩 달러이다. 중국물류자산은 대형 물류 설비 공급 기업으로 YPIH(宇培国际)에 의해 설립됐으며, 위엔양 그룹(远洋集团), RRJ Capital, 안팡(安邦)등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한 물류 보관 개발 플랫폼이다.

5월 2일, 징동이 3억 위안으로 레이냐오커지(雷鸟科技)의 추가 발행 주식을 인수했다. 이를 통해 레이냐오커지 6.67%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레이냐오커지는 LED 컨트롤러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TCL 그룹의 자회사이다.

5월 3일, UBTECH가 8.2억 달러 규모의 C단계 용자를 유치했고, 이로써 기업 가치는 50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UBTECH는 2012년 설립된 기업으로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춘 기업이다. 또한 플랫폼 앱 개발 운용과 상품 판매를 동시에 하는 세계적인 하이테크 기업이다.

5월 4일, 핑안하오이성(平安好医生)이 홍콩에서 상장했다. 핑안하오이성은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 관리 플랫폼으로 이번 주식 발행 가격은 1주당 가격은 50.8홍콩달러에서 54.8홍콩달러 사이라고 한다.

## 주간 투자사건 일람표

분야	기업 명칭	시간	투자단계	금액(위안)	투자자	유형
라이프스타일	웨이지(味及)	2018.05.04	엔젤	미공개	미공개	투자사건
전자상거래	이러창(农乐仓)	2018.04.30	A	수천만	北极光创投, GGV纪源资本	투자사건
	상우슈어(享物说)	2018.05.02	B	미공개	Hillhouse Capital Group (高领资本)	투자사건
	이당셴(农当先)	2018.05.03	시드	수백만	Will Hunting Capital (唯猪资本)	투자사건
	하하링쇼우(哈哈零兽)	2018.05.03	A	수천만	Pine VC(松禾资本), Yuanwang (远望资本), Yijin VC(易津资本)	투자사건
	즐얼왕루오(只二网络)	2018.05.04	A+	수천만 달러	China Growth Capital (华创资本), Vplus VC(元璟资本), Redpoint venture (红点创投中国基金)	투자사건
소프트웨어 툴 킷	Sweetalk(甜言蜜语)	2018.05.03	전략투자	미공개	iFLYTEK(科大讯飞)	투자사건
교육	원치요우쓰(文启优思)	2018.05.02	A	2,000만	Gobi Partners(戈壁创投), Sino Group(中金集团),	투자사건

					优优老师	
	슬지하이항(世纪海航)	2018.05.02	A	수천만	Longline capital(时龙资本), 刘怀宇	투자사건
	샤오마왕(小码王)	2018.05.03	B	1.3억	Ebvc(钟鼎创投), Yonghua(涌铎投资), 微光创投	투자사건
	이미푸다오(溢米辅导)	2018.05.04	B	1,000만 달러	Blue Lake Capital(蓝湖资本), Divine Capital(德晖资本), Onesmart(精锐教育)	투자사건
금융	Bit.Game	2018.05.03	전략투자	미공개	TrustNote Foundation	투자사건
	귀리커지(果粒科技)	2018.05.03	Pre-A	5,000만	Sequoia(红杉资本中国), IDG VC(IDG资本)	투자사건
	황진관지아(黄金管家)	2018.05.04	B+	수천만	미공개	투자사건
	Kcash钱包	2018.05.04	전략투자	수천만	gxb(公信宝)	투자사건
	Vechain(唯链)	2018.05.05	전략투자	미공개	미공개	투자사건
관광	차이빼이커(彩贝壳)	2018.05.02	A	수천만 달러	Mafengwo(马蜂窝旅游网), Banyanvc(高榕资本)	투자사건
	쥬오뤄커지(卓锐科技)	2018.05.04	B	수억	Cybernaut(赛伯乐投资)	투자사건
	첸징뤄요우(全景旅游)	2018.05.04	전략투자	미공개	Uzai(众信旅游)	투자사건
농업	텐텐슈예농(天天学农)	2018.05.04	Pre-A	수천만	MatrixPartners China (经纬中国)	투자사건
	타이구성우(泰谷生物)	2018.05.04	전략투자	5,000만	TC capital(天赋资本)	투자사건
기업서비스	루이원(睿问)	2018.04.30	엔젤	수천만	UCOMMUNE(优客工场)	투자사건
	博雅立方(CubeAD)	2018.05.03	C	500만 달러	CBC(宽带资本)	투자사건
	쩐뤄커지(臻旅科技)	2018.05.03	엔젤	수백만	ChinaEquity Group (信中利资本), CScapital(基岩资本)	투자사건
	바이리엔즈닝 (百炼智能)	2018.05.04	엔젤	1,000만	Kika Tech(新美互通), Mininglamp(明略数据)	투자사건
	첸치우슬커(全球时刻)	2018.05.05	A+	미공개	ZTO(中通快递)	투자사건
모빌리티	위란씬시커지 (裕兰信息科技)	2018.05.02	A	4,000만	Sharelink-vc(协力投资)	투자사건
	처항이(车行易)	2018.05.02	A	1,000만 달러	UCAR(神州优车集团)	투자사건
	치에즈즐마이 (茄子直卖)	2018.05.03	전략투자	미공개	杨浩涌	투자사건
	처주뺑(车主邦)	2018.05.03	A+	1.1억	Pusu Capital(朴素资本)	투자사건
	중윈즐처(中云智车)	2018.05.04	시드	수백만	Innoangel(英诺天使基金)	투자사건
	룽티에쥬헝(龙铁纵横)	2018.05.04	인수합병	6.1억	Invengo(远望谷)	인수합병
	팅지엔단(停简单)	2018.05.05	B+	미공개	Ant financial(蚂蚁金服), Sunsea(阳光海天)	투자사건
문화, 엔터테인먼트	쌍찌에이(双界仪)	2018.05.02	엔젤	수천만	Yoozoo(游族网络)	투자사건
	씨엔만동만(鲜漫动漫)	2018.05.03	A+	수천만	bilibili(哔哩哔哩)	투자사건
	펑미엔쥬원(封面新闻)	2018.05.04	Pre-A	수억	四川文化产业股权投资基金	투자사건
물류	쥬궈우류쯔찬 (中国物流资产)	2018.05.02	전략투자	8.98억 홍콩달러	JD(京东)	투자사건
의료 건강	파이썬뉘(派森挪)	2018.05.01	전략투자	수천만	미공개	투자사건
	썬이쥬닝(森亿智能)	2018.05.02	B	1억	Sequoia(红杉资本中国), Zhenfund(真格基金), GGV Capital(纪源资本)	투자사건

	치우쩐이슈에 (求臻医学)	2018.05.02	A	1억	High light Capital(弘晖资本), Delta-Capital(达泰资本), Mifund(募方资本)	투자사건
	리엔씬이라오 (连心医疗)	2018.05.03	A	5,000만	Linear Venture(线性资本), Danhua Capital(丹华资本)	투자사건
	핑안하오이성(平安好 医生)	2018.05.04	IPO	11억 달러	미공개	투자사건
	찌엔슬성우(健世生物)	2018.05.04	A	수 천만	CDBI Partners(辰德资本)	투자사건
	커씬찌엔캉(珂信健康)	2018.05.05	C	2.4억	OF capital(东方富海), HG Capital(华盖资本)	투자사건
	쥙요우징준이라오 (中优精准医疗)	2018.05.05	전략투자	5.37억	Yuyue(鱼跃医疗)	투자사건
하드웨어	선우커지(神雾科技)	2018.04.30	전략투자	15억	GSR ventures(金沙江资本)	투자사건
	아오슬커지(傲势科技)	2018.05.02	A	미공개	Panlin Cap(磐霖资本)	투자사건
	레이냐오커지(雷鸟科 技)	2018.05.02	전략투자	3억	JD(징동)	투자사건
	허싸이커지(禾赛科技)	2018.05.03	B	2.5억	Lightspeed cp(光速中国), Baidu(百度公司)	투자사건
	UBTECH(优必选科技)	2018.05.03	C+	8.2억 달러	CDH Investments(鼎晖投资), Tencent(腾讯), Pine VC(松禾资本), CMBC(民生银行), Haier(海尔), 浙江创新投, CreditEase(宜信财富), Cgnpe(中广核产业基金), icbci(工银国际), 民生通海, Easyhome(居然之家)	투자사건
	씨엔성후리엔 (先声互联)	2018.05.03	인수병합	미공개	Alibaba(阿里巴巴)	인수병합
	리에슬잉인(裂石影音)	2018.05.04	Pre-A	수천만	미공개	투자사건
	루이한이라오 (睿瀚医疗)	2018.05.04	Pre-A	2,000만	Edgevc(青锐创投), 西安高新投, readingvc(睿鼎资本)	투자사건
	징동팡(京东方)	2018.05.04	전략투자	14억 달러	Corning(康宁)	투자사건
게임	AR Monster	2018.05.02	시드	수백만	미공개	투자사건
	후린싱멍(互联星梦)	2018.05.03	B	미공개	미공개	투자사건
	EDG	2018.05.04	Pre-A	미공개	미공개	투자사건
소셜 네트워크	창커싱치우(创客星球)	2018.05.02	Pre-B	수천만	Qiming vc(启明创投)	투자사건

## 주간 중국 전문가 ISSUE

## AI 특집 (2018. 4. 28 ~ 2018. 5. 8)

## 1. CITVC와 알리바바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분야 협력 계약

(출처: [양시뉴스\(央视新闻\)](#), 2018.4.28)

오늘(4월 28일) 오전, 중앙라디오TV본부 산하의 중국 국제방송 본사가 알리바바 그룹과 기술 협력 계약을 맺었다. 양측은 클라우드 플랫폼, 빅데이터, 정보화 플랫폼 구축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 국제방송 본사와 알리바바 그룹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구조의 원칙 하에, 알리바바 그룹의 기술 우위를 십분 활용하여 양측 모두 다방면에서 실무 협력을 진행키로 하였다.

클라우드 플랫폼과 관련하여 양측은 합동 팀을 구성해 혼합형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데이터와 관련하여 양측은 빅데이터 응용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영상 시청 패턴과 라이브&영상의 태그, 광고 빅데이터의 분석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협력과 관련하여 양측은 연합 인공지능 실험실을 만들어 영상 콘텐츠 생산과 제작&발표된 인공지능 기술 응용에 대해 연구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혁신과 이용자의 체험도를 극대화 한다.

## 2. 의료 인공지능 기업 SYNYI·AI 1억 위안 B라운드 용자 받았다. (GGV Capital 주도)

(출처: [소후 IT\(搜狐科技\)](#), 2018.5.2)

5월 2일, ZAKER 소식에 따르면 의료 AI 기업 Synyi가 1억 위안 규모의 B단계 용자를 완성했다고 한다. 이번 용자는 GGV Capital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Sequoia, Zhen Fund도 용자에 참여했다. 과거에 Synyi는 Sequoia 주도, Zhongdian Jiankang Fund가 참여한 5500만 위안 규모의 A단계 용자를 달성했었다.

이번 용자와 관련하여 Synyi의 설립자 겸 CEO 장샤오디엔(张少典)은 '창업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순조로운 제품의 연구와 개발, 시장에서의 응용, 비즈니스 구축이 있었다. 이번 용자의 주 목적은 기술의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고객 서비스 체계를 확고히 하고, 제품 사용자의 체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번 용자를 달성하고 난 뒤, Synyi는 의학 자연어 처리, 의료 데이터 관리, 기계 학습 등 영역에서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이어갈 것이며, 업무 확장을 하는 동시에 업계의 표준 규범 등 다방면에 관해 심층적인 탐구를 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 3. UBTECH, 텐센트 주도의 8.2억 달러 C라운드 투자 유치..

(출처: [소후 IT\(搜狐科技\)](#), 2018.5.3)

5월 3일,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 개발, 제조와 판매까지 아우르는 유비테크(UBTECH)가 8.2억 달러 규모의 C단계 용자를 달성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텐센트 주도의 용자는 공상은행, Haier, 민생증권(民生证券), Telstra(澳洲电信), 쥐란즈자(居然之家), CHIA TAI group(泰国正大集团), 민생은행(民生银行), Yixin group(宜信集团), CGN group(中广核), Pinevc(松禾资本)등 기업이 참여했다. 유비테크의 B단계 용자 주도 기업인 CDH Investments (鼎晖资本)는 투자 규모를 늘렸다고 한다. 소식에 따르면, C단계 투자 유치 후에는 유비테크의 가치가 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한다.

유비테크는 2012년 설립된 로봇 기술 기업으로 스마트 가정 로봇의 연구와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업이다.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연구와 개발,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운용 및 제품의 판매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보급형 휴머노이드 Alpha 시리즈와 STEM 교육 스마트 프로그래밍 로봇 Jimu, 스마트 비즈니스 서비스 로봇 Cruzr, 디즈니와 협력해 제작한 우주 대전 제1군단 돌격 로봇 등 많은 제품을 출시했다.

### 4. AI 음성 비서 SoundHound, 텐센트와 현대 주도의 1억 달러 규모 용자 유치, 중국 시장 개척 예정

(출처: [렵운망\(猎云网\)](#), 2018.5.3)

오늘, SoundHound가 Houdify 음성 인공지능 플랫폼의 국제적 확장을 가속화 하기 위한 1억 달러의 용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새로운 언어 서비스도 출시하며, 신규 지점도 개설한다고 한다.

Hound 음성 비서는 가정과 자동차로도 응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한다. 이번 용자의 투자사는 텐센트와 현대 자동차, Orange S.A., Daimler AG이다.

SoundHound의 수석 집행관 겸 창시자Keyvan Mohajer 는 해외 매체에게 “이번 용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이점을 가져다 주었다. 첫 번째로는 대량의 자금을 얻은 것. 두 번째로는 이번 용자의 투자사들은 리스크 투자가 아닌 전략적 투자에 속하며, 모두 시장에서 성공적인 상품과 거대한 고객군을 확보한 기업으로 음성 인공지능이 자사에게 중요하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고, 큰 잠재력도 가지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만약 캐나다 시장에 진출하려면 새로운 전략 구상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중국에서 실패한 경험은 큰 교훈을 가져다 줬다. 텐센트는 스마트 음성 영역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우리 기업을 굉장히 지지한다. 또한 우리가 중국에서 성공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5. 중국 과기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연구센터 설립

(출처: [중국 과기부\(科技部\)](#), 2018.5.8)

4월 26일, 중국 과기부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연구센터 설립회의'와 '인공지능 발전 추세 세미나'를 개최했다. 왕쯔강(王志纲) 부장의 위임 하에 리멍(李萌) 부부장이 회의를 진행했다.

과기부는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에서 실시되는 조직보장 및 연구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연구센터를 설립한다(이하 "연구센터"). 연구센터는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의 지원 하에 인공지능 분야의 학자들과 관련 인사들에게 광범위한 연락을 취하며, 최종 목표는 인공지능 발전전략 및 선두 기술 방향에 대한 문의 및 제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리멍(李萌) 부부장은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중국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연구센터는 한 걸음 더 기관의 사명감을 고양하고,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의 강도를 높이고, 트렌드를 즉각적으로 판단하여, 전략 및 정책을 축적하는 것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여러 기관의 자원을 모으고, 영향력이 높은 인공지능 연구 협력 플랫폼을 만들며, 중국 인공지능의 주요 문제를 연구하는 협력 관계 형성을 통해 전략적 목표를 중심에 놓고 주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고품질의 연구성과를 도출해 내며, 국가를 위하여 인공지능 발전의 기회를 파악할 수 있게 돕고, 국가 경쟁의 전반적 향상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계획이다.

## 전기차 특집 (2018. 4. 21~2018. 4. 27)



본 자료는 SV Investment(<http://svinvestment.co.kr>)에서 제작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중국 신문, 협회 등의 언론 자료를 번역, 정리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성, 정확성에 대해서는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SV Investment 장형식 이사(jangform@svinvest.com), 배진희 사원(jhbae@svinvest.com) 또는 윤이상 사원(ysyoon@svinvest.com)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egatrend Investors(<http://cafe.naver.com/qfiichina>)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중문자료 작성: 윤이상 사원, 번역 Assistant: 이승현, 신재민 (북경대 광화관리학원)]

## 1. BJEV 우회상장 심사 통과, 중국 신에너지차 업체 최초 상장 임박

(출처: [이오우망\(亿欧网\)](#), 2018.4.27)

보도에 의하면 BAIC BJEV의 S\*ST첸핑(600733.SH)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심사를 통과하면서 전국 최초로 상장에 성공한 신에너지 완성차 기업이 되었다. 앞서 S\*ST첸핑은 288.5억 위안으로 자산 치환과 지분 발행을 통한 자산매입 방식, 속칭 우회상장의 방식으로 BJEV 지분 100%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사를 통과한 구조조정 방안은 상장사 지분분할 개혁의 일부분으로, 이는 자산 치환과 지분 발행으로 BJEV의 지분 100%를 매입한 것, 그리고 20억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매칭펀드를 모집한 사실을 포함한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 '17년 12월 26일에 S\*ST첸핑은 공시를 통해, 지배주주 국유지분을 BAIC에 무상 이전하며 당사의 지분개혁에 속도가 붙었고 관련 지분개혁 및 구조조정 방안이 '18년 1월 22일 발표, 2월 12일에 주주총회에서 높은 찬성률로 회의를 통과하면서 금년 2월 말 증감회가 본건을 수리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BJEV가 S\*ST첸핑을 통해 자본시장에 상륙을 도모한 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본 건의 전반적 사안에 대해 각 이해관계자가 높은 의견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의 선두 기업인 BJEV는 국내 최초 연 판매량 10만대를 돌파한 순수전기차 기업이며, 5년 연속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량 1위를 기록하였다. '17년 순수전기차 판매량이 10만 3200대를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이 23%에 달했고, 당해 전세계 순수전기차 시장 판매량 1위에 올랐다. 공개자료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18년 1분기 BJEV는 21,251대를 판매하여 동기 대비 67% 성장했다. 이밖에도, BJEV는 중국에 드문 전기차 3대 핵심 기술(배터리, 모터, 전기모터식 동력 컨트롤러)과 완성차 제조기술을 겸비한 신에너지자동차 기업이다.

그리고 금년 2월, 다임러 또한 BJEV의 주주가 되었다. <다임러 대중화지역 투자유한회사의 증자를 통한 BJEV 주주 등록에 대한 국가발전개혁위사무국의 회신>(이하 "<회신>")에 의하면 발개위는 다임러가 선전 징강산 신에너지가 소유 중인 BJEV의 지분 일부를 매입하는 데 동의했다.

다임러의 "보증수표" 외에도 BJEV는 신형 자동차 제조업체의 러브콜을 받았다. 2일 전 SINGULATO의 '18년 북경모터쇼에서 당사는 BJEV와 스마트카 기술 개발, 전기차 충전소 건설, 중개판매 네트워크, 제조 자원 공유 등 분야에서 전면적인 협력 관계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오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BJEV가 SINGULATO의 첫 양산 모델인 iS6를 생산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양측은 배터리 스위치 모드 전기차의 개발 분야에서도 협력 관계를 맺을 예정이다.

BJEV는 아직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회의를 통과한 데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상장 후 자본시장의 조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양질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 2. 공신부, 연내 신에너지자동차산업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출처: [상해증권보\(上海证券报\)](#), 2018.4.26)

국무원신문은 25일 베이징에서 신문발표회를 가졌다. 공신부 총 엔지니어 겸 대변인인 천인(陈因)은 이번 발표회에서 중국 개방의 문은 닫히지 않고 오히려 더 열릴 것이라 밝혔다. 공신부는 현재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자동차 관세 상당수준 인하를 연구 중이며, 빠른 시일내에 제정 및 확정 지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천인은 “시장진입의 벽을 낮추는 것은 윈윈 조치”라고 전했다. 중국 자동차산업은 지금껏 대외개방의 원칙을 지켜 외국과의 교류협력을 장려해왔다. 중국 자동차시장은 전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자동차시장 중 하나로 거의 모든 해외 유명 자동차 그룹들은 중국에 합작회사를 두고 꾸준히 발전해왔다.

중국은 앞으로 거의 개방된 제조업을 기반으로 자동차산업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해 '18년까지 특수목적차량,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철폐하고, '20년과 '22년까지 각각 상용차와 승용차산업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철폐함과 동시에 합작회사가 2곳을 넘지 못하는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공신부는 시장개방을 확장하는 동시에 혁신을 장려해 기업들이 핵심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천인은 공신부가 혁신센터 건설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전했다. 현재까지 공신부는 동력배터리, 적층 가공, IT광전자, 인쇄 및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로봇 등 5개의 국가제조업 혁신센터를 건설했으며 관련 성은 약 60 곳의 성급 제조업 혁신센터를 배출해냈다.

다음 단계로 공신부는 기업주체, 시장주도형, 산업과 학계가 융합된 제조업 혁신체계를 확립해 제조업의 질 높은 발전을 주도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NB-IoT (Narrow Band-Internet of Things)의 네트워크 커버리지 개선, 더 많은 분야로의 발전을 통해 NB-IoT산업의 융성을 이끌어 사회 각 산업사슬의 발전을 이끌 것이다.

## 3. 일본 소프트뱅크, NIO 미국 IPO 위해 2억 달러 원조 가능성

(출처: [Gasgoo자동차망\(盖世汽车网\)](#), 2018.4.27)

외신의 보도에 의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현재 중국 자동차 스타트업인 NIO의 미국 IPO 과정에서 2억 달러의 지분을 매입하는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에 의하면 NIO는 IPO에서 20억~3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융자할 가능성이 있다.

이전 보도에 의하면 NIO는 이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8곳의 은행을 초청하여 당사가 계획 중인 하반기 미국 상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 IPO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중 3곳만이 용자 규모 2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작년 12월, NIO는 당사 최초의 양산 차량인 ES8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해당 모델은 테슬라의 Model X를 벤치마킹했지만 가격은 더 저렴하다. 관세와 기타 비용의 제약으로 중국 내 Model X의 판매가는 10만 달러를 상회하는 데 반해 ES8의 판매가는 7.1만 달러에 그친다. NIO는 현재까지 3만대의 ES8 주문을 접수하였으며 금년 6월에 대규모 출고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4. GAC, 디디추싱 위한 스마트전기차 제조 예정

(출처: [중국증권망\(中国证券网\)](#), 2018.4.24)

GAC(601238.SH)는 24일 오전 동사와 후이디 비즈니스서비스유한회사와 협력구조협의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후이디는 디디추싱(滴滴出行)의 신에너지차 오퍼레이션 서비스 대외협력을 위한 플랫폼회사다.

양측은 스마트전기차의 맞춤형 디자인 개발과 생산 영역에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은 공동 출자를 통해 합자 회사를 설립하여 스마트전기차 디자인의 커스터마이징 수요를 담당하고, GAC는 합자회사의 커스터마이징 니즈를 수용하여 스마트전기차의 디자인 개발과 생산을 담당한다. 이는 합자회사의 확인과 동의를 거친 커스터마이징 니즈, 그리고 당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스마트전기차의 디자인 개발과 생산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 5. 디디추싱, 카셰어링 사업 확대, 차량 제조업 진출 야심 부인

(출처: [증권일보\(证券日报\)](#), 2018.4.26)

4월 24일, 디디추싱(滴滴出行), BYD(002594.SZ), 장화이자동차(600418.SH) 등 31개의 자동차 산업 체인 기업이 발기하여 결성한 "홍류연맹(洪流联盟)"이 정식 출범하였다. 본 연맹은 개방과 권한의 이양을 핵심으로 하며 자동차 전체 산업체인이 협력하여 자동차 오퍼레이터 플랫폼을 공동 건설하고 신에너지화, 스마트화, 공유화의 방향으로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소개에 의하면 홍류연맹의 핵심 가치 이념은 개방과 권한의 이양이다. 유동량과 빅데이터, 상품 영업력, 그리고 채널 네트워크 등 자원을 연맹 소속 기업에 개방하는 것 외에도 디디추싱은 차량 렌트와 운영, 카셰어링, 차량 A/S 마켓 등 고객 수요에 대응하는 협력 솔루션을 개선하였다.

이밖에도 디디추싱과 연맹 회원사는 자율주행기술의 연구개발, 전기차 충전 시설 건설 방안 등 영역에서 협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재 디디추싱 산하 "샤오쥐충전(小桔充电)"은 신에너지차 차주에 표준화된 실시간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향후 디디추싱과 연맹 회원사는 스마트화, 데이터화된 충전 서비스를 공동 구축하여 신에너지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자국의 신에너지차 산업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는 데 일조할 전망이다.

이에 대하여 디디추싱의 창립자, 이사장 겸 CEO인 청웨이(程维)는 "디디추싱은 이후에도 차량 제조업에 뛰어들 계획이 일절 없으며 최대 자동차 오퍼레이터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도 않는다. 디디추싱의 핵심 역량은 빅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한계를 돌파하여 차주와 고객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며 디디추싱이 향후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게 될 포지션은 매우 명확하다고 밝혔다.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2018. 5. 9)



## 1. 中 암호화폐 거래소, 1조 규모 블록체인 펀드 조성

(출처: [전자신문](#), 2018.5.4.)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중국 후오비가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신생기업) 지원을 위한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3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후오비는 해당 펀드를 중국 하이난 기반의 소셜네트워킹 플랫폼 회사인 티엔야(Tianya)와 공동 조성한다.

후오비는 공식 블로그에서 양사가 함께 글로벌 걸쳐 앤 크리에이티브 블록체인 연구소를 설립하고, 아울러 세계적 기업들과 협력해 10개의 블록체인 연구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후오비는 본사를 베이징에서 하이난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이난은 중국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이자 가장 큰 경제특별구역이다.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하이난을 투자와 무역에 개방적인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으로 키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3년에 설립된 후오비는 오케이코인(OKCoin)과 함께 중국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다.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후오비의 24시간 동안 총 암호화폐 거래량은 약 17억달러(약 2조8000억원)에 이른다.

중국 정부는 작년 암호화폐 거래와 암호화폐공개(ICO)방식의 자금조달을 전면 금지하고, 단속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VPN 서비스 없이는 중국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당시 후오비도 합법적 사업을 위해 싱가포르에 법인을 새로 만들고, '후오비 프로'를 새로 설립했다. 이번에 하이난으로 옮겨지는 것은 본사에 해당하는 '후오비 글로벌'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ICO를 금지했지만, 신규 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분산형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는 중국에 수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 역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취하면서 미래 먹거리로서 지원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 2. 코인도 中이 대세?...중국계 암호화폐, 한달 새 이례적 급등

(출처: [동아일보](#), 2018.5.3.)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열풍에 가려져 있던 중국계 암호화폐가 최근 블록체인 시장의 주인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업계에 따르면 3일 중국계 암호화폐 트론은 개당 97원(업비트 기준)에 거래되며 지난달 5일 빗썸과 업비트에 상장한 이후, 한달만에 2배 이상 급등했다. 시장 전반이 회복세를 보였다고해도 트론처럼 한달새 2배 이상 급등한 사례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론은 게임과 1인방송, 음원 등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사용하도록 개발된 암호화폐로 중국인 개발자 저스틴 선이 만들었다. 출시 초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알리바바 출신 개발자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시가총액이 5조원까지 치솟았고 어느덧 시총 기준 세계 10위권 암호화폐로 발돋움했다.

또다른 중국계 암호화폐인 쿼텀 역시, 최근 가장 많이 가격이 오른 암호화폐 중 하나다. '중국판 이더리움'이라 불리며 플랫폼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쿼텀은 국내 스타트업들도 대거 쿼텀 플랫폼에 진입하면서 4월 초 대비 2배 가까이 가격이 급등했다.

이밖에도 네오 등 유독 중국계 암호화폐 다수가 최근 한달새 두배 가까이 가격이 급등하는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선 바이낸스와 후오비, 오케이코인 등 중국계 거래사이트의 해외진출로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낮아진데다, 중국 내 암호화폐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시장은 엄격하게 규제하면서도, 항저우와 심천을 중심으로 지자체 주도의 블록체인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수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해 블록체인 서비스를 적극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중국 정부가 해외 기업을 막아주고 텐센트와 바이두 등 자국 IT 기업을 키워준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자국 내 블록체인 서비스를 적극 밀어줄 공산이 크다. 이같은 분위기속에서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 대형 IT기업들도 저마다 블록체인 B2C 사업에 뛰어드는 양상이다.

다만 일각에선 "트론 등 일부 중국계 코인들이 가격 상승 대비, 기술적으로 큰 혁신을 이뤄내진 못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심리를 꺾고 있는 일부 투기자본들이 중국계 코인들의 기대감을 부풀리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술적으로 큰 진보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 (27) (2018. 5. 7)

본 자료는 아시아디자인연구원(ADI) 원장이며, 상하이교통대학 미디어&디자인 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윤희건 교수가 기고한 것 입니다.

본 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윤희건 교수(yoon\_bam@126.com)께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 "새로운 제품은 과학적 원리와 변하는 시장을 이해하면 탄생한다."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볼 때 이어폰 혹은 헤드폰을 사용한다. 이어폰 혹은 헤드폰에서 나온 음파가 귓구멍 안의 공기를 타고 고막에 진동을 가하면 그것을 뇌가 인식한다.

여기 골전도(Bone Conduction Technology) 이어폰이 있다. 음파가 뼈를 통해 고막까지 전달 진동하여, 이 진동을 뇌가 인식한다. 기존 이어폰의 음파는 공기를 매체로 하였다면, 골전도 이어폰은 고막까지 연결되어 있는 뼈를 매체로 한다.

어린 시절 종이컵을 실로 연결해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컵과 컵 사이가 4~5미터였는데 소리가 실을 타고 전달되었다. 매체의 성질에 따라 효과가 다르지만 소리가 매체를 통하여 전달될 수 있다는 놀라운 과학적 사실이 숨어 있다.



기존의 이어폰과 유사한 스타일(왼쪽)과 귀걸이 스타일(중앙), 선글라스 스타일(오른쪽)의 골전도 이어폰

기존의 이어폰, 헤드폰은 귀를 완전히 막아 외부 음을 차단하는 방식이었다면, 골전도 이어폰은 귓구멍을 막지 않고 다른 음을 들을 수 있다. 기존의 방식과 확연히 다르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세 가지 스타일의 제품이 차례차례 나왔다. 처음 하나는 기존의 이어폰과 유사한 스타일, 그 후, 귀걸이 스타일과 선글라스 스타일이었다. 원리는 같지만 전혀 다른 스타일의 제품이다.

장시간 착용하여도 귀에 부담이 적다. 동시에 외부 음을 들을 수 있어 주변 상황을 함께 인지하여 안전에 기여한다. 처음 시장에 출시하는 회사는 기존 것과 어떻게 차별화하여야 최대의 효과가 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였을 것이다.

이런 저런 시장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스타일의 제품이 탄생하였다. 시장 상황은 또 변한다. 미리 대처하는 쪽이 유리하다. 독보적인 디자인은 원리를 이용하여 신제품을 만드는 일이다. 그 후 시장 상황에 맞게 신제품을 끊임없이 준비하는 것이다.

전혀 새로운 개념의 제품은 과학적 원리와 변하는 시장을 이해하면 탄생할 수 있다. 한 번 찾아보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KIC 중국 NEWS

## 1. 중국 혁신창업 생태계 현지조사단 선전시 방문, 고영화 센터장 특강 진행

5월 2일에서 4일까지 2박 3일간 중국 광둥성 선전시(Shen Valley)에서 혁신성장금융본부의 주최로 중국 혁신창업 생태계 현지조사가 시행되었다. 중국 선전은 IT 제조분야 창업이 활성화된 도시로, 혁신 제조업 창업의 허브로 성장한 곳이다. 이 조사는 연간 550만개 스타트업이 설립되는 중국 혁신창업 생태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원정책을 파악하고, 국내 혁신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지조사단은 4차 산업 혁명위원회, 일자리 위원회, VC협회 등 관련기관 중 30명으로 구성되었다.

5월 2일 현지조사단은 텐센트와 잉단(Ingdan)을 방문하였다. 잉단은 8000여개의 전자제품 공급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를 주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 곳에서 KOTRA 정준규 과장, KIC 고영화 센터장의 연사 특강이 진행되었으며, 고영화 센터장은 중국 4차산업 전략과 창업투자계획,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강연하였다.

다음날에는 중국내 최대 벤처투자기관인 선전캐피탈에 방문하여 MOU를 체결하였다.



<사진1: 잉단에서의 행사가 끝난 뒤의 기념사진>



<사진2: 고영화 센터장이 잉단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로 선전의 창업생태계의 벤치마킹 및 해외진출의 투자유치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KIC중국, 제5회 기업가정신과정 창업교육 및 취업설명회 개최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혁신센터(KIC) 중국(센터장 고영화)은 2018년 5월 5일(토요일) 오후 우한대학교 국제교류학원에서 주중한국대사관과 우한대학교가 지원하고, KIC중국, 코트라 IT지운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우한대학교 한국인학생회가 주관하는 “제5회 기업가정신과정 창업교육 및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제5회 기업가정신과정 창업교육 및 취업설명회 단체사진>

본 행사는 유학생들에게 창업 및 취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행사로서, 재 우한 한국 유학생 70명이 참가했으며 한국과 중국 양국의 창업 및 취업 관련 성공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중국 유학생들이 다시 한번 중국 유학 생활에 대해 깊게 고민해보고 앞으로의 삶에 터닝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사진2: 강민구 대표가 학생들 앞에서 강연하고 있다>

1부 창업파트 행사는 텐센트 창업공간 우한 담당자 소송 경리를 축사를 시작으로, 처쿠카페 우한지점 지한광 총경리가 우한 창업환경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트레저헌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Treasure Hunter Global Entertainment) 김희수 대표의 창업 성공 사례1: '중국 진출 성공방법'을 발표하고, 이어 화동미디어 강민구 대표가 '중국의 창업성공 방법'을 주제로 강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으로 KIC중국 고영화 센터장이 '중국 창업성공 열풍과 KIC중국 프로그램'에 대해 강연하였다.



<사진3: 박상욱 대표가 학생들 앞에서 강연하고 있다>

이어서 2부 취업파트 행사에선 E&E 브릿지 박상욱 대표가 "중국 내 취업시 준비 해야 할 점과 유의사항"에 관해 강의를 진행 하였고, 북경대 조상욱 연구생이 중국 현지 취업 성공 사례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끝으로 코트라 우한무역과 송익준 관장이 취업관련 사업 안내 및 IT지원센터를 소개했다.

한국혁신센터 고영화 센터장은 "우한의 많은 학생들이 창업교육에 참석해서 반가웠습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창업교육을 북경, 상해 외에 2선 도시로 다 확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우한대학교 한국인 학생회장은 "KIC에서 주관하는 이번 창업, 취업 설명회를 통해 창업 및 취업을 준비하는 우한대학교 학생들에게 꿈을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2선 도시에서도 이러한 혜택이 2선 도시의 유학생들에게도 전해지길 희망하며 행사에 주최해주신 고영화 센터장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라고 하였다.

강연이 끝난 후, 마련된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평소 궁금했던 중국 창업 분위기 또는 중국 현지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며 강연을 마무리 지었다.

한국혁신센터(Korea Innovation Center) 중국(센터장 고영화)은 과기정통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국내 창업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는 글로벌혁신센터이다. 창업 초기부터 성공적 안착까지 전주기 맞춤형 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창업정보 제공, 창업 교육, 인큐베이션/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진행과 중국 VC를 연계한 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KIC 중국은 2016년 6월 베이징에 정식 설립되었으며, 2017년 2월, 중관춘 창업 거리에 창업공간을 오픈하고, 25개 기업을 인큐베이팅하였으며, \$550만불의 투자유치와 \$490만불의 중국매출을 달성하였다.

### 3. 제2회 재 중국 한국유학생 제4차산업혁명 창업대회 계획(안) v5.1

(2018.04.19. KIC중국)

#### □ 행사개요

- 행사명: 제2회 재 중국 한국유학생 제4차 산업혁명 창업대회
- 일시: 2018년 6월 16일(토) 오후
- 장소: 한국혁신센터(중국) (중관촌 창업거리 처쿠카페 4층)
- 주최기관: 주중한국대사관
- 주관기관: 한국혁신센터(중국), 북경총한국학생회연합
- 대상: 재 중국 한국유학생+중국인 학생
- 주요영역: 중국 시장 개척이 가능한 창업아이템

#### □ 시상

- 본선 진출팀 모두에게 창업대회 참가증 부여(KIC 중국 발행)
- 본선 진출팀 모두에게 KIC중국 인턴기회 제공(팀당 한국인 1명+중국인 1명, 총 2명)
- 상금(세전): 1등(1팀) 10,000RMB, 2등(1팀) 5,000RMB, 3등(1팀) 3,000RMB,  
우수상(1팀), 장려상(1팀) 각각 1,000RMB

#### □ 접수방법

- 북경총한국학생회연합 사이트(<http://cafe.naver.com/beijingkrst>)접속 후 "북총 college"- "북총xKIC 창업대회" 에서 접수

#### □ 신청 필수별첨 자료

- 참가신청서
- 팀(회사)소개서
- 사업계획서(PPT 혹은 PDF 20페이지 이내)

#### □ 주의사항

- 중국인이 1명 이상 포함(팀원 최대5명)
- 참가팀 전원 학생으로 구성 (어학연수, 교환학생, 학사, 석사, 박사, 휴학생 포함. 직장인은 불가능)
- 모든 팀 중국어로 발표 (전원 참여)

#### □ 기본 지원사항

- 정기 스타트업 초기 교육 우대 초청
- 각 출전팀 멘토링 지원
- 팀 발표 연습공간 제공

## □ 추진일정

시 간	장 소	내 용	비 고
4/16~5/15	KIC중국	참가신청 접수	신청서양식 첨부1
5/21	KIC중국	서류심사 및 본선 진출팀 ( 10팀) 선정 발표 *진출팀 개별통지 및 북총카페 공지	
5/26	KIC중국	-비즈니스 플랜 작성법 교육① ( 필참) 및 1 : 1멘토링	첨부2
6/2	KIC중국	--비즈니스 플랜 작성법 교육② ( 필참) 및 1 : 1멘토링	첨부3
6/9	KIC중국	-발표력 향상 교육 ( 필참) 및 1:1 멘토링	첨부4
6/15	KIC중국	발표자 리허설 ( 출전팀 필참)	첨부5
6/16(토)	KIC중국	<b>재 중국 한국대학생 창업대회 본선</b>	첨부6

\* 세부 일정 변동 가능성 있음

## 4. KIC중국 인큐베이션 및 엑셀러레이션 모집 공고

과기정통부 주최로 KIC중국은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차이나·夢」 인큐베이션 및 「차이나·路」 엑셀러레이션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참가기업을 모집 하오니 관심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5월 1일  
한국혁신센터(KIC) 중국  
센터장 고영화

### ■ 배경

○ 국내 창조혁신센터 및 창업유관기관을 통해 투자유치 가능성이 검증된 창업(예비)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기회 제공 필요

### ■ 프로그램 개요

- 주최기관: 과기정통부
- 주관기관: 한국혁신센터(KIC) 중국
- 시 간: 2018년 7월 2일 ~ 9월 21일 (12주)
- 장 소: KIC중국 창업공간 (중국 북경시 해정구 창업거리)

### ■ 모집대상 (상세 프로그램 별첨 참조)

- 제5기 「차이나·夢」 인큐베이션 8팀
- 제3기 「차이나·路」 엑셀러레이션 2팀

### ■ 모집기간

- 모집기간: 2018.5.1.(화)~2018.5.31.(목) 18:00

### ■ 참가신청 절차

-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추천기업의 중문사업계획서(PPT)를 문의처 메일로 송부
- ※센터장 추천 기업에게 일정한 가산점 부여
- 개별기업이 직접 신청할 경우는 직접 중문사업계획서(PPT)를 문의처 메일로 송부

### ■ 참가자격

- 설립 7년 이하이고 한국인이 대주주인 스타트업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제조, AR/VR, 온라인교육, 바이오테크 등 우대
- 투자유치 유경험 스타트업 우대
- 프로그램 중 첫 1주일 교육("중국CEO" 교육) 시 법정대표가 필수 참여

### ■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에 대한 외부 평가위원의 중국 진출 가능성 평가로 참가기업을 선정

■ 최종선발자 발표

- 2018.6.7.(목)
- 10개 선정기업 및 예비 선발자 3개 기업 (※예비선정 기업은 결원 시 입주자격 부여)

■ 지원사항

- 창업 공간, 교육, 멘토링, 투자유치 행사참여 무료 제공
- 2인 1회 중국 왕복 비행기표 제공 (중국 도착 후 후불)
- 12주간 숙소 무료 제공 (4성급 호텔 수준 2인 1실)
- 우수 인큐베이션 졸업기업에게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선정 시 가산점 부여

■ 문의처

- 담당자: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류약 과장
- 전화: +86-138-1073-4560
- 메일: [liuyue@kicchina.org](mailto:liuyue@kicchina.org)

## 붙임1: KIC중국 "차이나드림"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안내

구 분	프로그램 내용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한 아이디어로부터 Scalable, Repeatable한 비즈니스 모델, 수익모델, MVP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li> <li>· 매월 1회 MVP를 개선하는 미션 부여 (중간퇴출 가능)</li> </ul>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기정통부 중국 현지창업 교육 우수 졸업생 창업(예비)기업</li> <li>· 국내 창조혁신센터 추천 중국진출 가능 창업(예비)기업</li> <li>· 과기정통부 주최 K-데모데이 행사 수상기업</li> <li>· 분기별 5개팀 선발</li> </ul>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전창업교육) 창업환경, 문화, 법률/인사, 회계/세무</li> <li>· (멘토링) 아이디어, MVP개발, 비즈니스모델, 수익모델, 팀구성 전략, 실전 사업계획서 등 맞춤형 지원</li> <li>· 성공·실패사례 분석 (글로벌 창업의 성공의 지식과 노하우 축적·확산)</li> <li>· 창업공간, 교육, 멘토링 등은 무료 제공</li> </ul>
후속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IC중국 엑셀러레이션 대상자 선정시 우대</li> <li>· 창업대회, 데모데이, 투자유치 기회 제공</li> </ul>

## ■ 지원사항

- 창업 공간, 교육, 멘토링 무료 제공
- 2인 1회 중국왕복 비행기표 제공 (중국 도착 후 후불)
- 3개월간 숙소 무료 제공 (4성급 호텔 수준 2인 1실)

## 붙임2: KIC중국 '차이나로'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안내

구 분	프로그램 내용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한 MVP를 확보한 상태에서 중국 현지 마케팅 전략 및 투자유치를 집중 지원하는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li> <li>· 매월 1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미션 부여 (중간퇴출 가능)</li> </ul>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IC-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우수 졸업 창업(예비)기업</li> <li>· 국내 창조혁신센터 및 창업유관기관을 통해 투자유치 가능성이 검증된 창업(예비)기업</li> <li>· 과기정통부 주최 K-데모데이 행사 수상기업</li> <li>· 반년 5개 팀 선발</li> </ul>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전창업교육) 창업환경, 문화, 법률/인사, 회계/세무</li> <li>· (멘토링) 비즈니스모델, 수익모델, 팀구성 전략, 실전 사업계획서, 중국 마케팅전략, 투자유치 전략 등 맞춤형 지원</li> <li>· 성공·실패사례 분석 (글로벌 창업의 성공의 지식과 노하우 축적·확산)</li> <li>· 창업공간, 교육, 멘토링 등은 무료 제공</li> </ul>
후속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대회, 데모데이, 투자유치 기회 제공</li> <li>· 중국 투자유치 시 한국투자자의 매칭투자 연계 가능</li> </ul>

## ■ 지원사항

- 창업 공간, 교육, 멘토링 무료 제공
- 2인 1회 중국왕복 비행기표 제공 (중국 도착 후 후불)
- 3개월간 숙소 무료 제공 (4성급 호텔 수준 2인 1실)